

~53回 發明教室

7月 9日, 成功事例 등 發表

- ... 本會는 지난 7月 9日 特許廳 研修室에서 第53回 發明教室을 開催했다.○
- ... 每月 둘째 土曜日 午後 1時에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이달에도 200여명이 參席...○
- ...하여 盛況을 이루었다. 이날 發明教室에서는 參원 API 金文煥 社長과 台和...○
- ...레저 池永泰 社長の 成功事例 發表에 이어 洪載日 辨理士의 「工業所有權制度」...○
- ...에 대한 강의를 있었다.○
- ... 두 發明人의 成功事例를 간추려 紹介한다.〈編輯者 記〉...○

레저用品 發明企業

台和레저 池永泰 사장

취미생활(낙시)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研究가 發明企業人을 誕生시켰다. 화제의 주인공은 「낙시 받침 보조대」(意匠 第31362號)에 이어 「도마가 있는 휴대용 수저통」(實用新案 第31686號)을 考案하여 登錄을 받아 台和레저를 설립한 池永泰 사장.

19년 刻苦의 努力이 結實을 맺고 있는 것이다.

池사장이 發明과 인연을 맺은 것은 70년 후반. 취미인 낙시를 즐기면서 낙시 받침 보조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研究에 몰두한 결과 10년 후인 80년 意匠登錄을 받으면서 發明의 길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낙시 받침 보조대 考案에 이처럽긴 시간이 걸린 것은 직장인으로서 틈틈이 研究에 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考案인 낙시받침 보조대는 그에게 기쁨과 영광보다는 실패와 고통을 안겨주었다.

1천여조를 生産, 販賣를 시도했으나 팔리지 않았다. 이것이 있

으면 편리하기는 했으나 없어도 낙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考案은 實用性和 市場性이 높아야 成功할 수 있지요.』

이에 따라 낙시 받침보조대의 企業化를 포기하고 도마가 있는 휴대용 수저통의 考案을 시작했다. 池사장의 말. 이때가 80년 가을. 낙시를 갈때마다 아내가 취사도구를 준비해 주는디, 그것이 워낙 번거로워 한 통에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研究한 데서 비롯되었다. 研究기간은 4년.

역시 직장인으로서 틈틈이 목판을 파 수저등 사취도구를 넣을 수 있는 모형을 만들었다. 그가 만든 모형은 모두 4개. 적은 數지만 목각 경험이 전혀 없는 그에게는 큰 고통이 뒤따랐다. 조각칼이 빛나가 생긴 손등의 상처들이 그날의 고통의 代辯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그는 해냈다. 그리고 84년 實用新案으로 出願하여 86년에는 登錄을 받았으며, '86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에서는 觀望인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池永泰 社長〉

PVC 합성수지를 원료로 사출금형 生産되고 있는 이 製品은 가로 15cm·세로 20cm·두께 4cm·무게 1kg 속에 미니칼 1개·수저 5개·포크 5개·중합오프너 1개·저분 5인분·조미료용기 3개·이쑤시게 20개가 내장되어 있다.

따라서 취사도구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면은 위생도마로 사용할 수 있도록 人體에 無害한 나일론 수저로 가공 처리되었다.

지난 5월 설립한 台和레저는 요즘 全國에서 밀리는 주문에 밤낮이 따로 없다. 〈8〉